



입학준비금 공약 축소… 절차 적절성 ‘도마’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결산 심사서 질타

도민평가단 최근 초 30만원·중고등 20만원 조정안 가결
“평가단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교육감이 책임 있게 설명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이 당초 약속보다 절반 이상 낮은 액수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약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이 개최한 도민평가단 3차 회의에선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포함한 총 7건의 공약 조정 안건이 심의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민평가단을 꾸려 운영했으며, 모두 세 차례에 걸친 마지막 회의에선 교육감 공약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도민평가단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입학준비금 지원 공약에 대해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각 2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는 당초 공약(초등 70만원, 중·고등 50만원)보다 절반 이상 낮은 금액이다. 투표 이전에 도교육청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이같이 조정하는 안을 평가단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쓴 소리가 나온다. 2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등을 심사한 자리에서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

당, 비례대표)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적당한 평가 방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창환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도민평가단 2차 회의에서 공약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3차 회의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당시(3차 회의) 내용을 바로 받고 심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학생과 도민에게는 충분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최종 결정의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한다”며 “(도민)평가단의 의결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공약 변경의 근거와 사업의 유지·폐지 기준을 교육감이 책임 있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교육감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 예산이 방만

하게 쓰였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김광수 교육감 공약은 노트북이었다. 그전 이석문 교육감 공약은 비데였다”며 “컴퓨터가 비데를 이겼다고 그랬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광수 교육감이 노트북 지급을, 3선 도전에 실패한 이석문 전 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화장실 비데 설치를 공약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감들이 그동안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썼기 때문에 아마 시·도 교육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콧방귀 하나 안 뀌 것”이라며 “지금 또 과하게 쓰겠다고 하면 아마 4년 후에 교육감 직선제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지은기자

문안로에서

월동채소 적정생산으로 안정 가격 회복을

제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월동채소인 양배추와 브로콜리, 월동무, 당근 등이 파종과 정식에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지난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 월동채소는 전국 겨울철 채소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물량이 제주에서 생산·공급되는 만큼 제주지역 작황과 생산량은 전국 채소 수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도내 주요 품목 생산량이 일제히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농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많이 생산하는 농업’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장정훈
제주도의회 의원

고, 파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경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확대 추진돼야 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한 뒤 대응하는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파종 전부터 수급을 관리하는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정 재배면적을 준수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품목은 계약재배와 출하약정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

생산 이후에는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한 출하물량 조절과 공동출하를 확대하고, 저장 등을 통해 출하시기를 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적정생산의 책임을 농업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2024년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월동채소의 안정적인 가격은 단순히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다. 농업인이 생산비를 감당하고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며,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올해 파종기를 맞은 제주산 월동채소가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 월동채소 농업이 수요와 전국 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적정량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 농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많이’에서 ‘필요한 만큼’
선제적인 생산 조절 필요
출하시기 분산 시스템 구축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 예측과 선제적인 생산조절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종자 신청량과 농가 재배의향조사, 파종 이후 드론조사 등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과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육지부 주요 월동채소의 재배면적과 작황, 예상 생산량, 출하시기까지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급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에서 적정생산을 하더라도 육지부 생산량이 크게 늘면 전국적인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반대로 육지부 작황이 좋지 않다면 제주산의 출하전락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급 상황을 함께 살피며 생산과 출하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정보를 종합해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농가에 제시하

서 바다로 흘려 보내는 방류수를 세 차례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10 이하)을 크게 밑도는 1.5, 총인은 기준(2 이하)의 10분의 1인 0.2, 총대장균수는 기준(3000 이하)의 60분의 1 수준인 50.3으로 측정됐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위성근 지사는 “하수처리시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민의 건강한 삶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기본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증설로 동부지역 하수처리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 두도동 하수처리장 시설을 지하로 매설하고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준공되면 하루 처리용량이 13만㎥에서 22만㎥로 대폭 증가한다. 이는 도내 하수 발생 처리량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11년 만에 마무리

주민 반발·소송에 공사 중단 재개 수차례 반복 속
500억원 투입… 처리 용량 2만4000㎥로 2배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서 위성근 제주지사와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설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499억8300만원(국비 233억7000만원, 도비 266억1300만

하다 11년 만에 준공됐다.

일부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가 용천동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고 개발 사업 면적이 1만2200㎡이기 때문에 증설하기 위한 선 각종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민들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도 제주도가 계속 공사를 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잇따라 제기했으며 2~3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이어졌다.

그동안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 인용됐지만 법적 다툼 끝에 제주도의 고시가 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며 지난해 2월부터 증설 공사가 정상화됐다.

증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동부지역 하수 처리난에도 숨통이 트였다. 제주도가 준공을 앞두고 동부하수처리장을 시 운전하는 과정에

원)을 투입해 동부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1만2000㎥에서 2만4000㎥로 2배 늘리는 것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공사의 근거가 된 제주도 고시에 대한 적법성 논란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13호

서귀포시 소하천(대정, 안덕, 동지역) 및 서귀포시 소하천(남원, 성산, 표선) 정비종합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귀포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22) 수립을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4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2, 제13조,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귀포시

1. 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 1) 서귀포시 소하천(대정, 안덕, 동지역) 정비종합계획
2) 서귀포시 소하천(남원, 성산, 표선) 정비종합계획
나. 위치: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동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다. 범위: 1) 관내 소하천 21개소 (L=41.039km)
2) 관내 소하천 25개소 (L=89.762km)
라. 계획수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승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2. 주민공람
가. 공람기간: 2026년 09월 22일(화) ~ 2026년 10월 26일(월)2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구분	내 용
대정, 안덕, 동지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대정읍사무소, 안덕면사무소, 영천동사무소, 동흥동사무소, 대림동사무소, 대천동사무소, 예래동사무소, 제주시 한림면사무소
남원, 성산, 표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읍사무소, 성산읍사무소, 표선면사무소
공통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iass.go.kr)

다. 관련서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요약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및 요약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안)(소하천의 지점 및 폐지,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 소하천 예정지의 지점 및 변경, 종합계획의 수립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속(안) 및 편입조서(안), 주민의견 제출서 등 공람 장소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일 정
대정, 안덕, 동지역	2026년 10월 02일(금) 17:00: 대정읍사무소 2026년 10월 07일(수) 16:00: 안덕면사무소 2026년 10월 14일(수) 18:00: 대림동사무소 2026년 10월 15일(목) 17:30: 영천동사무소 2026년 10월 19일(월) 18:30: 대천동사무소 2026년 10월 20일(화) 18:30: 동흥동사무소 2026년 10월 01일(목) 17:00: 남원읍사무소 2026년 10월 08일(목) 17:00: 표선면사무소

4. 주민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년 09월 22일(화) ~ 2026년 11월 02일(월)(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공람기관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064-760-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대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① 50%특별할인 ②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ANDBA 하드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들 혼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사창방면 1층 삼검규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메이스트빌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 동서인테리어
건축/실내 토탈 인테리어/욕실/거실/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블랙이강/침대/소파/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